MARKET
STRATEGY

2026. 4. 6.

글로벌투자전략팀
권범석 선임연구원
beomseok.kwon@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K-증시 투자 전략 노트

Vol. 1: 대미 투자 프로젝트 장기 시계열로 접근할 필요

- 대미투자특별법 공포에 따른 미국 인프라 확대에서 투자 기회 포착
- 일본의 사례 참고 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에너지 인프라에 집중
- 한국 증시에서 피팅(Fitting) 관련주에 관심

- **대미투자특별법 공포…미국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주목:**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 정부는 조선 · 반도체 · 의약품 · 핵심광물 · 에너지 ·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첨단산업 분야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또한,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할 계획. 이를 투자 기회로 삼기 위해서 프로젝트 별 관련 장비/기자재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 특히, 직접 CAPEX를 지출해 단기적 현금이 유출되는 기업보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기업(vendor)의 펀더멘털 개선이 기대. 추가로, 참여 기업 명단 선정에서 미국 기업이 공급하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즉 글로벌 마켓 파워가 강한 기업들이 유리할 전망
-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에너지 인프라에 집중:**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일본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 일본 정부는 3월 중순까지 총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19.8%인 1,087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구체화. 투자된 금액 중 99.4%에 해당하는 1,081억 달러가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집중
- 오하이오주 천연가스 발전 프로젝트는 대표 사례.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은 해당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일명 포츠머스 컨소시엄(Portsmouth Consortium)을 구성. 이 중 일본 벤더사의 주가 퍼포먼스는 벤치마크인 Nikkei 225를 연간 6.7%p 아웃퍼폼. 미국의 경우 벤더사의 주가 퍼포먼스는 벤치마크인 S&P 500을 31.8%p 아웃퍼폼
- **한국 증시에서 피팅주에 관심:** 일본 사례를 참고할 시, 한국의 주요 대미 프로젝트는 1) 천연가스 발전시설, 2) SMR 등 에너지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피팅, 가스터빈, 발전용 배열회수보일러(HRSG), 변압기, EPC(건설) 등 관련 제품/서비스 라인업을 보유한 기업들의 수혜 기대
- 특히, 최근 주가 모멘텀이 가장 약했던 것은 피팅 관련주. 피팅 관련주 중 특히, 산업용 피팅 중 용접용 피팅 제품(butt-welding fitting)을 제조하는 성광벤드와 태광에 관심. 해당 산업은 주요 마켓 플레이어가 소수인 과점 형태의 구조라는 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비에이치아이, 효성중공업, 현대건설 등이 높은 밸류를 받았던 사례와 유사. 성광벤드와 태광은 이미 아메리카/중동 지역으로 활발한 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 추가로 피팅 관련주의 펀더멘털은 유가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어 유가 'Higher for Longer' 국면 헤지 기능 존재

삼성증권

대미투자특별법 공포…미국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주목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올해 6월이 될 것으로 예상. 정부는 조선 · 반도체 · 의약품 · 핵심광물 · 에너지 ·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첨단산업 분야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또한,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할 계획.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주로 보증,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이뤄질 예정

2,000억 달러 규모의 첨단산업분야 투자 관련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 대미투자에 대한 안전 장치로 정부는 연간 200억불의 투자 한도를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대미투자가 지속적으로 이행될 예정. 투자가 집행되는 기간이 매우 긴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을 단기 이벤트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제 3조에 '대미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vendor) 및 공급업체, 대미투자 사업의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를 선정할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것'으로 명시해 국내 기업의 적극 참여를 독려 중. 여기서 정의된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

이를 투자 기회로 삼기 위해서 프로젝트 별 관련 장비/기자재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 특히, 직접 CAPEX를 지출해 단기적 현금이 유출되는 기업보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기업(vendor)의 펀더멘털 개선이 기대. 추가로, 참여 기업 명단 선정에서 미국 기업이 공급하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즉 글로벌 마켓 파워가 강한 기업들이 유리할 전망.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 건설로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 건설에 몰두 중. 지난 2월부터 일본과 합의한 6건의 프로젝트 중 5건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인 점을 감안 시 한국의 대미 프로젝트 주요 초점도 에너지 인프라에 맞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

표 1. 대미투자특별법 주요 내용

투자 규모 및 분야	총 3,500억 달러 추진 ·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전용 투자(보증, 대출 등의 금융지원 포함) · 2,000억 달러: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첨단산업 분야
핵심 제도	· 상업적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국가안보, 공급망 안정 등 정책적 필요시 예외 허용. 예외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 필요 ·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를 의미 ·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 집행 금지

자료: 법제처, 삼성증권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에너지 인프라에 집중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일본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 2월 18일 일본과 미국은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적 투자 구상의 첫번째 사업 대상(Batch)에 대해 합의. 합의된 프로젝트는 1) 오하이오주 천연가스 발전 프로젝트, 2) 텍사스주 심해 원유 수출 인프라, 3)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 등 총 세 개

한달 뒤인 3월 19일 일본, 미국 정부는 두번째 사업 대상에 대해 합의. 합의된 프로젝트는 4) 테네시 및 앨라배마 SMR 건설, 5)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천연가스 발전 프로젝트, 6)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 프로젝트.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총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19.8%인 1,087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구체화. 투자된 금액 중 99.4%에 해당하는 1,081억 달러가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집중

오하이오주 천연가스 발전 프로젝트는 대표 사례: 총 3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9.2GW의 세계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발전시설 건설이 목표. 운영사는 일본 소프트뱅크(SoftBank)의 자회사인 SB Energy로 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첫번째 사업 대상을 발표하며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 기업들의 리스트를 공개.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 기업들은 소프트뱅크 그룹(SoftBank Group) 도시바(Toshiba Corp), 히타치 제작소(Hitachi Ltd), 미쓰비시 전기(Mitsubishi Elec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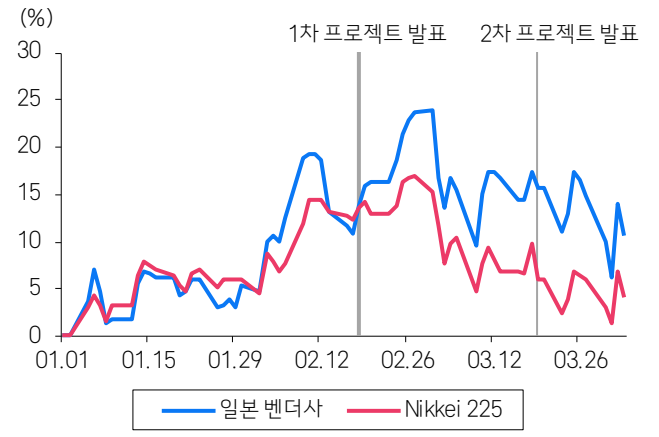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은 해당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일명 포츠머스 컨소시엄(Portsmouth Consortium)을 구성해 5,0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발표해 프로젝트의 연계성을 강화. 해당 프로젝트는 참여 기업이 다소 구체화된 대표적인 사례. 표 2는 경제산업성과 소프트뱅크가 발표한 참여 기업리스트를 투자 주체, 운영사, 벤더사 성격으로 구분. 이 중 일본 벤더사의 주가 퍼포먼스는 벤치마크인 Nikkei 225를 연간 6.7%p 아웃퍼폼. 미국의 경우 벤더사의 주가 퍼포먼스는 벤치마크인 S&P 500을 31.8%p 아웃퍼폼. 아웃퍼폼 요인에는 일본의 대미 투자 이외에도 1월 북반구 한파, AI CAPEX 확대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였겠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모두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부족에 기인

표 2. 소프트뱅크가 공개한 포츠머스 컨소시엄 참여 의향 기업

국가	기업	코드	주요 에너지 제품/서비스	성격
일본	Fujikura Ltd.	5803 JP Equity	광섬유 케이블, 커넥터, FPC	벤더사
	Hitachi, Ltd.	6501 JP Equity	인프라/에너지 시스템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6503 JP Equity	에너지 시스템(가스 터빈 등)	
	Murata Manufacturing Co., Ltd.	6981 JP Equity	MLCC, 컨버터, 인덕터	
	Panasonic Holdings Corporation	6752 JP Equity	리튬 이온 배터리, ESS	
	Sumitomo Electric Industries, Ltd.	5802 JP Equity	전력 케이블, ESS	
	TDK Corporation	6762 JP Equity	리튬이온 배터리, 전원공급장치	
	Toshiba Corporation	비상장	송배전/인프라 시스템	
	SB Energy	비상장	에너지 개발 및 운영	운영사
	SoftBank Group Corp.	9984 JP Equity	통신서비스, 투자업	투자사
	Mizuho Bank, Ltd.	8411 JP Equity	은행업	
	MUFG Bank, Ltd.	8306 JP Equity	은행업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8316 JP Equity	은행업	
미국	Bechtel Global Corporation	비상장	천연가스 발전소 EPC	벤더사
	Carrier Global Corporation	CARR US Equity	히트 펌프, 냉각기	
	GE Vernova, Inc.	GEV US Equity	가스터빈, 발전기 등 에너지 솔루션	
	Kiewit Corporation	비상장	천연가스 발전소 EPC	
	Kinder Morgan, Inc.	KMI US Equity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솔루션	
	Citi	C US Equity	은행업	투자사
	Goldman Sachs	GS US Equity	은행업	
	J.P. Morgan	JPM US Equity	은행업	
	Morgan Stanley	MS US Equity	은행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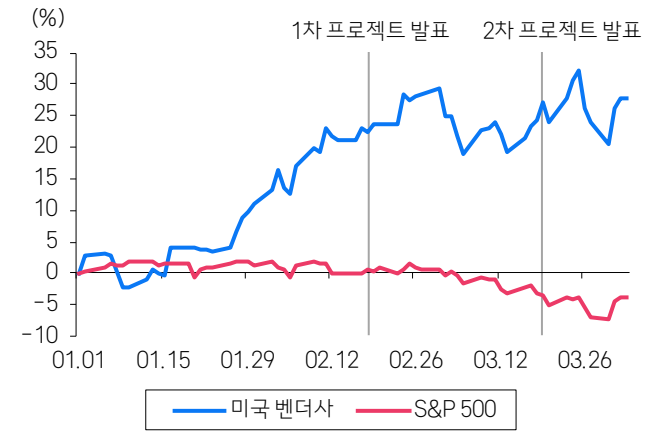
자료: SoftBank Group, 삼성증권 정리

그림 1. 일본: 포츠머스 컨소시엄 벤더사 주가 추이



참고: 일본 벤더사는 Fujikura, Hitachi, Mitsubishi Electric, Murata Manufacturing, Panasonic Holdings, Sumitomo Electric, TDK 포함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그림 2. 미국: 포츠머스 컨소시엄 벤더사 주가 추이



참고: 미국 벤더사는 Carrier, GE Vernova, Kinder Morgan 포함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표 3. 1차/2차 일본 대미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

발표일	프로젝트	성격	투자액 (억 달러)	개요	운영사
1차 (2/18)	오하이오 천연가스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	330	· 9.2GW의 세계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발전시설 건설	SB Energy
	텍사스 심해 원유 수출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21	· VLCC가 접안할 수 있는 심해 원유 수출 인프라(Deepwater Crude Oil Export Terminal)로 연간 200억~300억 달러(20년간 4,000억~6,000억 달러배럴로 환산) 규모의 미국 원유 수출 증대를 목표	Sentinel Midstream
	조지아 합성 다이아몬드 생산시설	제조 시설	6	· 고압, 고온 합성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 건설	Element Six
2차 (3/19)	테네시/앨라배마 SMR	에너지 인프라	400	· 공식 명칭 'GE Vernova Hitachi BWRX-300s SMR' 총 3GW의 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설을 목표	GE Vernova Hitachi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천연가스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	170	· 일명 '사우스 몬 프로젝트(Project South Mon)'으로 불리는 해당 프로젝트는 4.3GW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 설비 설치 · 마르셀러스 및 유티카 셰일 지역 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연결되고, 중부 대서양 전력 시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펜실베이니아-뉴저지-메릴랜드(PJM) 송전망과 연계될 예정	NextEra Energy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	160	· 일명 '앤더슨 프로젝트(Project Anderson)'으로 불리는 해당 프로젝트는 최대 5.2GW의 천연가스 발전 설비 착공을 목표	NextEra Energy
	합계		1,087		
예정 투자액(5,500억 달러) 대비 공개된 프로젝트 비율 (%)			19.8		
공개된 프로젝트(1,087억 달러) 대비 에너지 프로젝트 비율 (%)			99.4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미국 상무부, 삼성증권

한국 증시에서 피팅주에 관심

결론부터 제시하면 이번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는 피팅(Fitting) 관련주인 것으로 생각. 주요 이유는 1) 대미 투자 프로젝트 수혜, 2) 중동 정유시설 재건, 3) 유가 Higher for Longer 국면 수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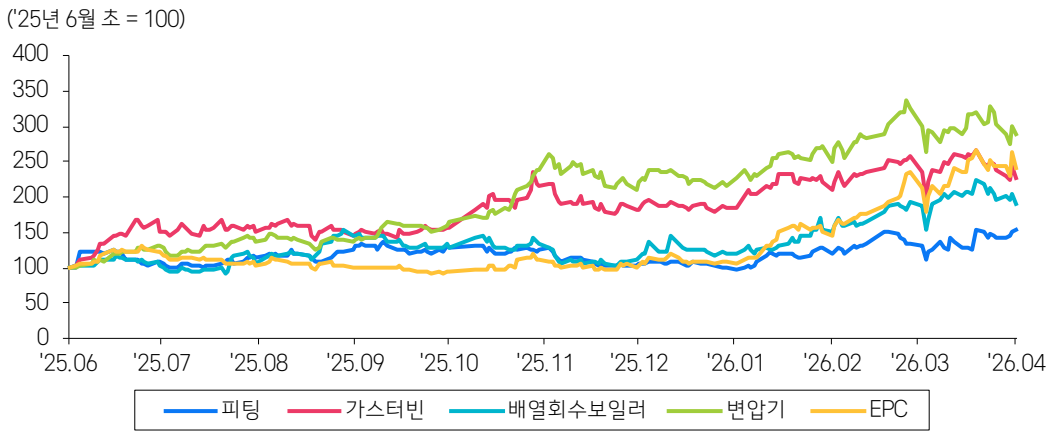
일본 사례를 참고할 시, 한국의 주요 대미 프로젝트는 1) 천연가스 발전시설, 2) SMR 등 에너지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피팅, 가스터빈, 발전용 배열회수보일러(HRSG), 변압기, EPC(건설) 등 관련 제품/서비스 라인업을 보유한 기업들의 수혜 기대

표 4. 대미 프로젝트 참가 예상 후보군

테마	기업	코드	시가총액 (십억원)	주요 제품/서비스 (매출 비중)*
피팅	태광	023160	976	플랜트용 기자재 (89.4%)
	성광벤드	014620	961	관이음쇠 제조업 (100.0%)
가스터빈	두산에너빌리티	034020	59,957	NSSS, BOP, Turbine 등 (45.7%)
배열회수보일러 (HRSG)	비에이치아이	083650	2,822	보일러 (12.6%), HRSG (78.3%), BOP (3.4%)
	SNT 에너지	100840	970	Air Cooler (88.9%), HRSG (9.1%)
변압기	HD현대일렉트릭	267260	31,794	변압기 (69.5%), 회전기기 (14.4%), 배전기기 외 (16.1%)
	효성중공업	298040	23,479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감속기 등 (69.5%)
	LS ELECTRIC	010120	22,770	전력 송배전 관련 기기 및 시스템 (101.2%**)
EPC	현대건설	000720	16,570	플랜트/뉴에너지 (21.6%)
	대우건설	047040	6,833	플랜트 (13.9%)
	한전기술	052690	5,970	원자력 설계 (48.0%), 원자로 설계 (15.6%)
	DL이앤씨	375500	2,635	플랜트사업 (33.3%)

참고: '26년 4월 2일 종가 기준, 주요 제품은 2025년 기준, *종속회사 포함, ** 주요제품군에 연결조정 -28.5% 포함돼 100% 초과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그림 3. 대미 프로젝트 테마별 주가 추이 ('25년 하반기 이후)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표 5. 대미 프로젝트 참가 예상 기업 후보군 P/E Z-score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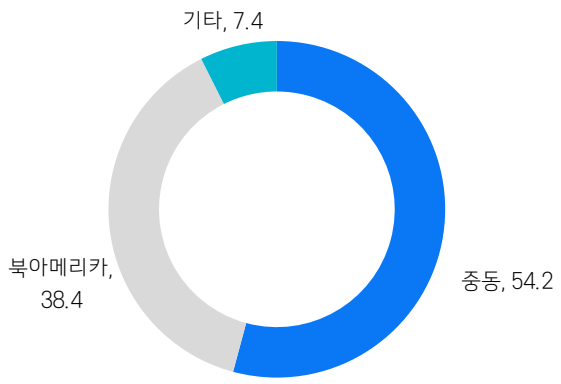
테마	피팅		가스터빈	배열회수보일러		변압기			EPC			
기업	태광	성광벤드	두산에너빌리티	비에이치아이	SNT에너지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ELECTRIC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전기술	DL이앤씨
현재 P/E	17.0	21.2	141.3	29.4	9.2	30.2	26.8	45.2	30.4	21.4	82.7	8.3
평균 P/E	23.7	49.1	31.8	15.2	10.9	16.1	9.9	14.1	9.2	5.5	52.9	4.5
표준편차	19.9	80.9	32.8	10.0	5.3	48.9	9.1	6.5	3.6	2.3	67.0	0.8
Z-score	-0.3	-0.3	3.3	1.4	-0.3	0.3	1.9	4.8	6.0	6.9	0.4	4.6

참고: 4월 2일 종가 기준, 평균 및 표준편차는 지난 10년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이 중, 최근 주가 모멘텀이 가장 약했던 것은 피팅 관련주. 피팅 관련주 중 특히, 산업용 피팅 중 용접용 피팅 제품(butt-welding fitting)을 제조하는 성광벤드와 태광에 관심. 용접용 피팅 제품의 전방 산업은 플랜트 산업으로 특히 석유화학, 조선/해양, 발전설비 등에 사용됨. 플랜트 내 배관의 방향을 바꾸거나 관경을 변화시킬 때 사용되며 글로벌 관점에서 소수의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구조. 2024년 기준 한국의 태광, 성광벤드, 이탈리아의 Bassi, Tectubi 등이 주요 플레이어로 압축. 해당 산업은 주요 마켓 플레이어가 소수인 과점 형태의 구조라는 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비에이치아이, 효성중공업, 현대건설 등이 높은 밸류를 받았던 사례와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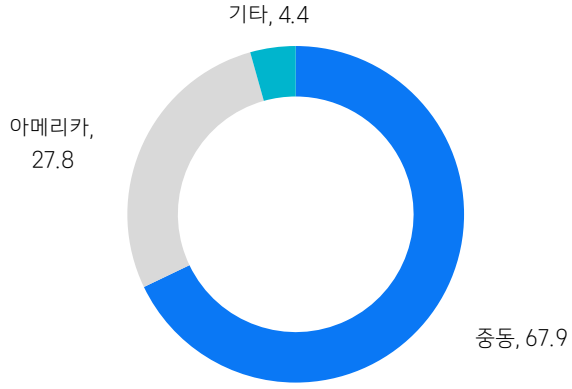
성광벤드와 태광은 이미 아메리카/중동 지역으로 활발한 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 2025년 기준 성광벤드의 경우 수출 비중 내 북아메리카(38.4%), 중동(54.2%)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광은 아메리카(27.8%), 중동(67.9%) 지역의 비중이 높음. 이는 대미 프로젝트에서 벤더사로 선정되기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중동 플랜트 재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됨. 중동 플랜트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카타르의 라스 라판 LNG 트레인 손상. 3월 중순 이란의 라스 라판 미사일 공격으로 QatarEnergy는 LNG 수출 능력의 17%가 상실되었으며 3~5년간 복구 과정이 필요하다고 발표. 이란의 공격은 이란 사우스 파르스(South Pars) 가스전이 공습을 받은 이후에 취해진 조치로 중동 에너지 인프라의 피해가 현 수준보다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그림 4. 성광벤드: 대륙별 수출 비중



참고: 2025년 기준
자료: 성광벤드, 삼성증권

그림 5. 태광: 대륙별 수출 비중



참고: 2025년 기준
자료: 태광, 삼성증권

그림 6. Elbow 피팅 제품 ('ㄱ'자 모양의 파이프 연결관 이음쇠)

자료: 태광, 삼성증권

그림 7. 카타르 에너지(QatarEnergy) LNG 트레인 일부 전경

자료: QatarEnergy,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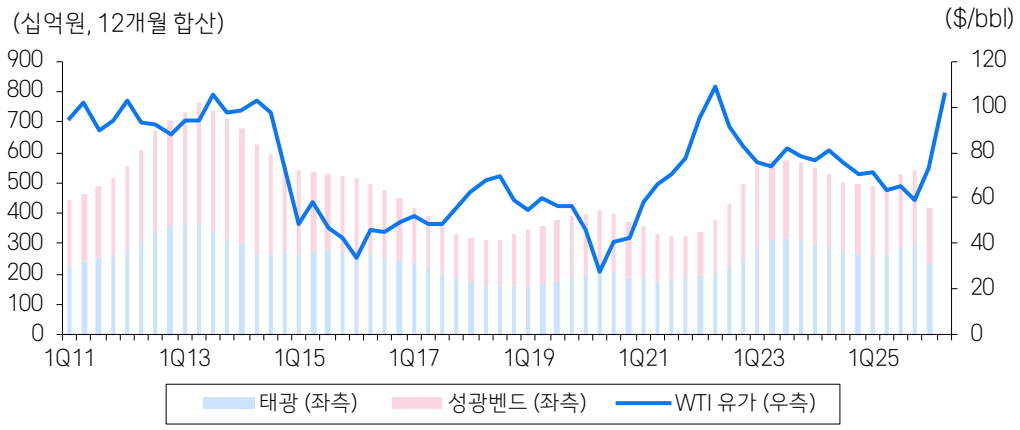
추가로, 피팅 관련주의 펀더멘털은 유가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어 유가 'Higher for Longer' 국면 헤지 기능 존재. 태광과 성광벤드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펀더멘털 지표는 유가에 대략 1년여 후행하는 경향이 관찰. 이는 유가 추이에 따라, 석유화학 플랜트 CAPEX 확대, Oil Tanker 발주 증가 등 전방산업의 경기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고객사 주문부터 선적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현재 원유 선물 시장은 최소 3개월 뒤까지 80불대의 유가가 지속될 것을 상정 중. 2월 말 불과 66.6달러에 불과했던 7월 만기 WTI 원유 선물은 4월 현재 34.3% 상승한 89.4달러 기록 중. 시장은 적어도 7월까지는 고유가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

당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 공급 병목 현상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어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사우디는 감산으로 낮춰 두었던 원유 생산 가동률을 끌어올린 이후에 해협의 물류 병목 해소와 함께 재고를 호르무즈 해협의 라스타누라항과 수출 대체 기지로 쓰이던 얀부항 각각으로 물량 배분을 얼마나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있어 주로 선적 정상화의 문제와 관련. 그러나, 원유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며 불가항력을 선언한 쿠웨이트석유공사(KPC)의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설비 점검, 압력 복원 등 유전을 재가동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이보다 긴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라크 역시 루마일라 유전 등 주요 남부 유전이 가동중단 상태에 있어 복구에 난항이 예상. (*4/2 발간자료 박주란 'Commodity Issues - 4월로 연장된 미국-이란 전쟁과 국제 유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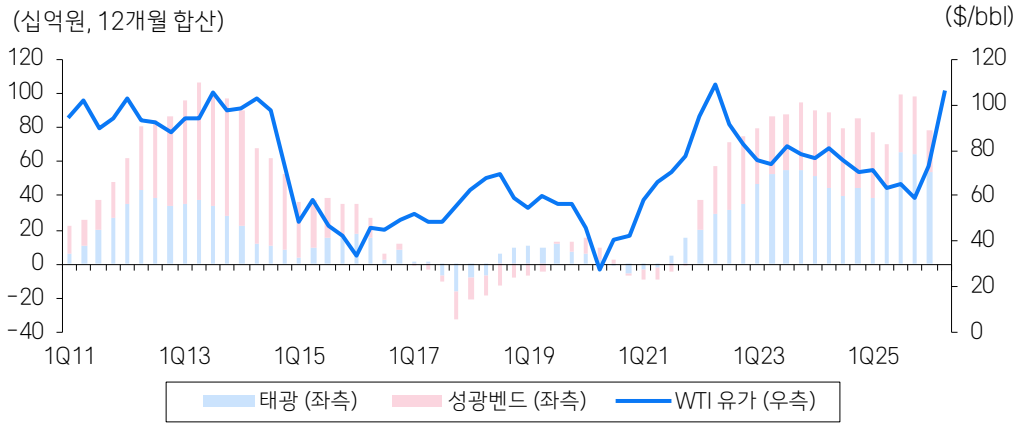
이 경우, 유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피팅 관련주의 펀더멘털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유가 변동성으로 높아진 증시 변동성을 헷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

그림 8. 태광, 성광벤드 매출액 및 WTI 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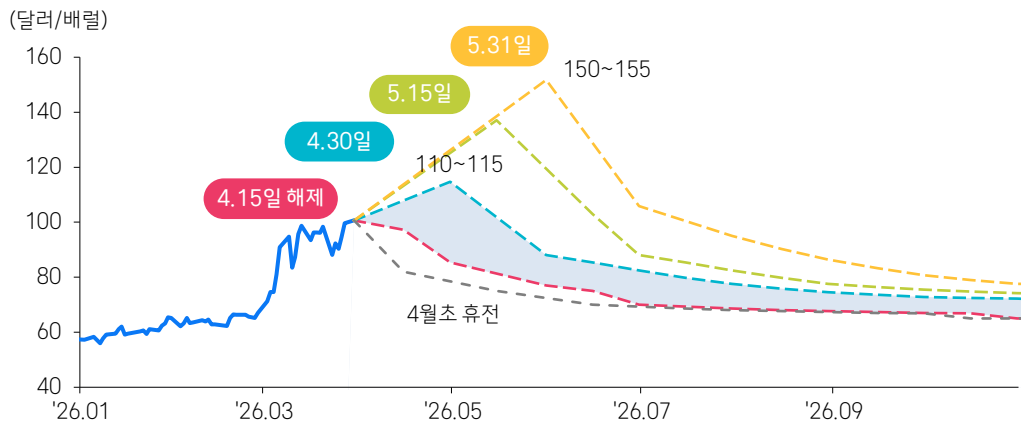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Quantiwise, 삼성증권

그림 9. 태광, 성광벤드 당기순이익 및 WTI 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Quantiwise, 삼성증권

그림 10. 당사 추정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 별 예상 국제유가(WTI) 경로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추정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4월 3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3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